

광양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촌캉스

여름방학·휴가 겨냥 생태 감수성 높이는 '촌캉스' 제안 "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재충전의 시간 갖길 바라"

광양시가 일 년에 딱 한 번뿐인 여름방학과 휴가를 겨냥해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촌캉스(村+바캉스)를 제안하고 나섰다.

시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는 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산물 수확, 마을 탐방, 천문, 도자기, 아트자전거, 천연염색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숙박, 시골밥상 등 휴양까지 만족시키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이다.

광양시에는 섬진강골들, 덕촌(봉강햇살촌), 형제 의병장, 하조산달팽이, 도선국사, 백운산, 백학동, 고사, 메이리 등 모두 9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다.

광양 최동단 섬진강골들마을은 천연염색, 도자기, 목공예, 아트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한편의 작은미술관에서는 도자,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된 '섬진강에 스미다' 전이 열리고 있어 예술감상 기회까지 누릴 수 있다.

성불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봉강 햇살촌은 숙박실, 세미나실, 족구장 등을 갖췄으며

물놀이, 꽃차 만들기, 녹차 체험 등과 함께 어린 시절 교정의 추억을 더듬어볼 수 있는 곳이다.

형제의병장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한 강희보·강희열 형제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으로 산사의 아침 산책, 피자 만들기, 무설탕 건강잼 만들기, 해달별 천문대 등 깊은 산속의 동화 속 여행을 만날 수 있다.

백운산 도솔봉 아래 하조산달팽이마을은 여행 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에 선정된 곳으로 산사의 아침 산책, 피자 만들기, 무설탕 건강잼 만들기, 해달별 천문대 등 깊은 산속의 동화 속 여행을 만날 수 있다.

도선국사마을은 신라시대 풍수지리 대가 도선이 35년간 머물렀던 옥룡사가 있던 곳으로 전통 손두부, 광양매실 향토음식, 부채 수목화, 아로마 훈증 테라피 등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농촌의 정겨운 향기가 가득한 옥룡 백운산마을도 꽃살장, 족구장, 배구장을 갖췄으며 인절미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고장탐방 등을 신나게 즐길 수 있다.

백학동마을은 "백운산 억불봉 아래 백학



이 하강하고 황룡이 배를 지고 있는 물형으로 선계의 땅인 듯하다"고 한 도선국사의 말에서 유래했다.

세미나실과 펜션, 족구장, 수영장 등이 있으며 석고 방항제, 소이 캔들, 시골밥상 등 계절마다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메이리마을은 신녀가 배를 찢다는 옥녀봉에서 발원한 금천계곡을 품고 있으며 물놀이, 물고기 잡기, 떡 만들기, 소망의 종 치기 등 이색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백운산이 병풍처럼 휘감고 도는 고사마을은 고풍스러운 한옥 펜션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섬진강가에 자리 잡고 있어 시원한 물놀이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라남도 농촌체험관광(<http://www.infarmtour.com/>)에 접속해 전라남도 지역별 관광안내도의 '광양시'를 선택하면 각 휴양마을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여름은 광양 백운산 자락의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시, 하수도공기업 최우수 '가' 등급 선정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공기업 94개 기관 중 순천시를 비롯해 4개 기관(순천, 부천, 구리, 김해)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3개 분야로 20개 내외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겨 성적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었다.

시는 1차 평가는 각 지자체도 평가(전남도 전남발전연구원), 2차 평가는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23.48, 경영성과 50점에 43.25, 사회적 가치실현 25점에 23.29점을 받아 총 90.02점을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도시 순천을 조성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판소리 성지 보성군,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보성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군중 운집 가능성이 큰 대규모 공연은 진행하지 않고 추모 공연, 경연대회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무관중 경연대회로 진행됐던 2021년과 달리 올해는 관중과 함께하는 경연 대회로 진행된다. 청중평가단 인기상을 신설해 청중의 참여도를 높인다. 명창부 본선은 기존 청중평가단 5점 배점을 없애고,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로만 평가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눠 명창·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 종합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명창부 판소리 본선은 공영 TV를 통해 방송 송출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061-852-2621)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음민 선생, 조상현, 성정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성=김영순기자

고흥군, 8주간 사회적경제 기업 아카데미 수료식 가져

고흥군은 귀농·귀촌인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8주간에 걸쳐 진행한 아카데미 강좌를 모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인식 향상을 위한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과 이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 지역 문제 해결 사례 등을 내용으로 진행돼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고흥군은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발맞춰 '고흥 귀농귀촌인과 동거동락(同居同樂) go-(興)'이란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해 지역주민과 원활한 적응 기회 제공과 사회적경제 진입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생활 기반 조성에 디딤돌 역할을 하며 귀농귀촌인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신규 지정 2개소 총 11개소로 민선8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20개까지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 거문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9개 지자체 응모 전국 유일 선정...2024년부터 5년간 360억 투입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공모한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

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

성화 사업'은 근·현대기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과 그 공간을 핵심 축으로 보존과 활용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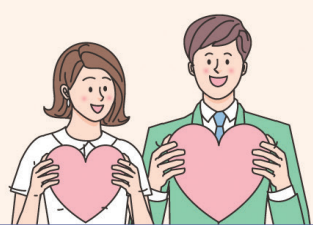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여수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응모해 1차 서면심사에서 4곳이 선정된 후 2차 현지조사,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삼산면 거문도가 단독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삼산면 거문도는 근대 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근대 개항 시기 발생한 거문도 사건과 서양문물의 유입, 내항 근대 가옥거리의 건축사적 가치, 의사당 건물 등 거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활용가치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당장 국가등록문화재 등 록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사업비 3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